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. 출장개요

| | 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출장목적 | 미국 Skybridge Capital 주관 SALT Asia 헤지펀드 글로벌컨퍼런스 참석 | | | | | |
| 장소 | 싱가포르(마리나베이 샌즈 호텔) | | | | | |
| 출 장 자 | 소 속 | 직 급 | 성 명 | 담당업무 | 출 장 경 비 | |
| | | | | | 금 액 | 부담기관 |
| | 자금운용단 | 1급 | 유승록 | 자금운용총괄 | 1,108,100원 | 공단 |
| | 대체투자팀 | 3급 | 기혁도 | 대체투자 | 1,031,800원 | 공단 |
| | 계 | 2명 | - | - | 2,139,900원 | 공단 |
| 동행기관명 | 국민연금공단, 한국투자공사 등 | | | | | |

2. 출장일정

| 월일시 (요일) | 출발 지 | 도착지 | 출장자 | 세미나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10.16(화) (10.17(수)) | 서울 (서울) | 싱가포르 (싱가포르) | 유승록 (기혁도) | 이동 | SQ607 |
| 10.17(수) | - | - | | 세미나참석(세계경제전망, 대체투자 동향, 아시아시장 전망) | |
| 10.18(목) | - | - | | 세미나참석(헤지펀드 Long/Short 전략, 금융위기점검, MBS) | |
| 10.19(금) | 서울 | 싱가포르 | 유승록 기혁도 | 세미나참석(신흥시장 투자방안, 글로벌 투자전략 등) | SQ602 |

3. 업무수행내용, 출장성과 및 시사점

(별첨 출장보고서 참조)

[별첨]

SALT Asia 헤지펀드 컨퍼런스 출장 보고서

1 SALT(Skybridge Alternatives)

□ 개요

○ 미국 Skybridge Capital이 주최하는 행사

※ Skybridge Capital

- 대형 Fund of Hedge Fund 운용회사
- 수탁고 : 6.4Billion(약 7조원) 규모

□ 특징

- '09년부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행사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헤지펀드 컨퍼런스 중 하나이며,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으나 '12년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개최

□ 일시 및 장소

| 구 분 | 주요 내용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명 칭 | Skybridge Alternatives(SALT) |
| 일 시 | 2012.10.17 (수) ~ 10.19 (금) |
| 장 소 |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컨벤션 센터 |

□ 주요 참가자

○ 주요 참가자

- 헤지펀드 운용사, 헤지펀드 기관투자자, 프라임브로커 및 헤지펀드 서비스 제공자 등

※ '12.10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는 36개국, 약 1천여명 참석

○ 주요 Speaker

- 대형 헤지펀드 파트너, 기관투자자 CIO
- 이 외 미국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, 작가 등 다양한 Speaker 구성

□ 컨퍼런스 일정

○ 주제

- 자산운용 : Modern Portfolio, 자산배분, 대체투자 트렌드, 시딩 투자
- 헤지펀드 : 펀드오브헤지펀드, 헤지펀드 트렌드, 헤지펀드 1:1 면담

○ Key Speaker

| 구 분 | Key Speaker |
|----------|---|
| 헤지펀드 매니저 | Cheah Cheng Hye (Value Partners), Steve Kuhn (Pineriver), Mark McCombe (Blackrock), Deepak Narula (Metacapital), Jim Rogers, Joe Zhou (Ortus), Michael Karsch (Karch) |
| 투자자 | Jim Rogers, Daniel Ward (Virginia Tech Foundation), CIC, GIC, Temasek |
| 교 수 | Nouriel Roubini (Roubini Economics), Michael Milken (Milken) |
| 정치인 | Tony Blair, Al Gore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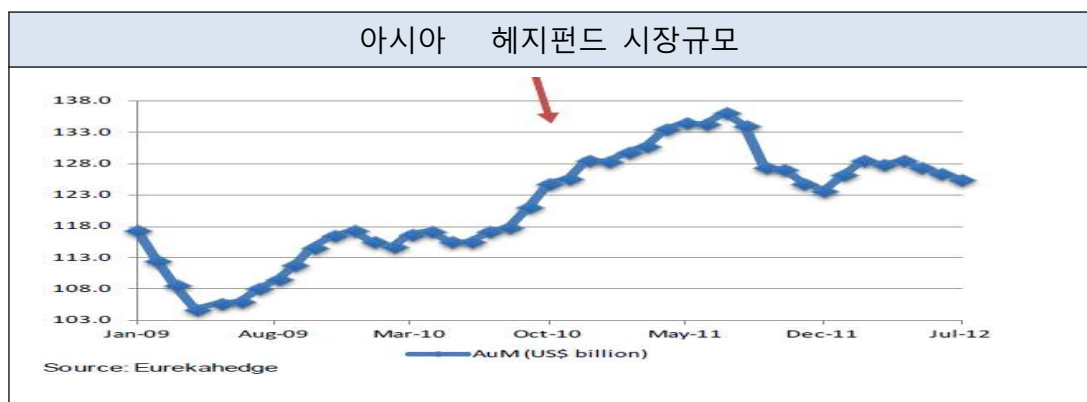
2 주요 Agenda

□ 아시아(Asia)

○ 대다수 참가자들이 아시아를 거론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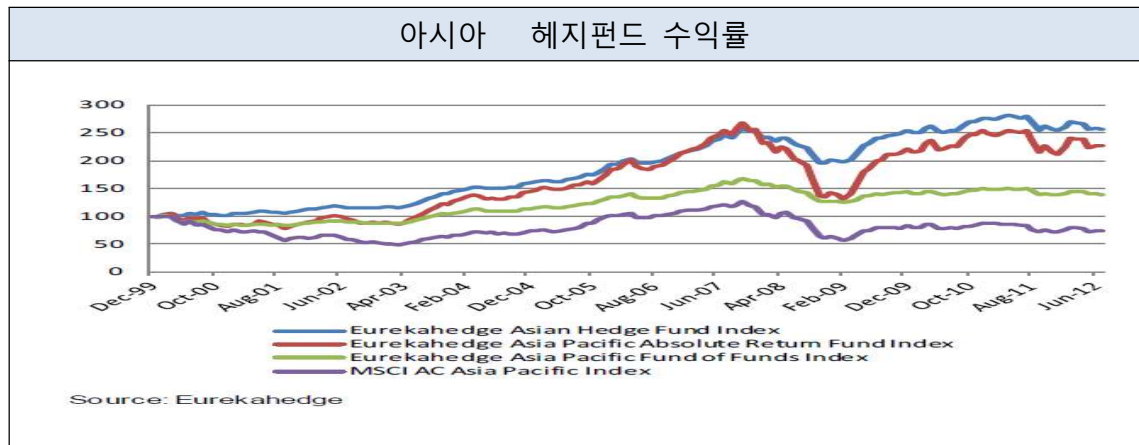
- 주최자인 Skybridge Capital은 향후 10년간 아시아 헤지펀드에 30% 이상 추가투자를 고려한다고 언급

- Fortress Asia Macro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Adam Levison은 향후 3년간 아시아에서 헤지펀드 투자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
- 아시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는 점
 - Asia Macro 전략으로 창립 3년만에 \$3bn을 넘어선 Dymon Asia
 - 환율을 시스템매매기법으로 운용하는 Ortus Capital의 Joe Zhou
- 아시아 기관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
 - 중국, 한국,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모두 참여
 - 아시아 펀드오브펀드, 프라이빗 बैं킹도 헤지펀드와 미팅 활발



- 아시아 투자전략
 - 글로벌 경기부양에 따른 전세계적인 ‘인플레이션’이 투자 포인트
 - 아시아 지역, 특히 중국의 경착륙/연착륙 여부
 -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(일본 vs 한국)
 - 중국의 정권 교체와 인도의 성장 둔화 등은 아시아의 장기적 성장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
 - 일본은 유럽 대비 디레버리징(부채축소/차입청산)의 막바지

- 통화전쟁(아시아 통화 바스켓 매수, 일본엔/미달러 자금조달 통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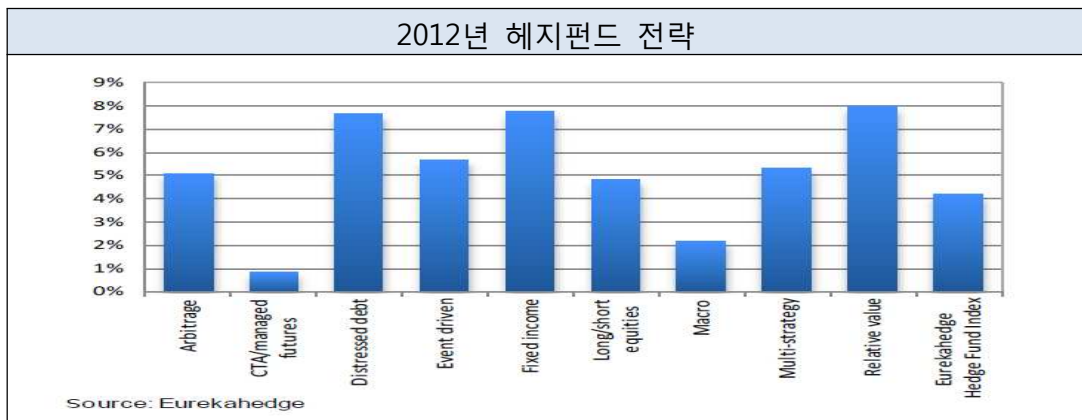
□ MBS 등 투자 다변화

○ 2012년은 MBS 헤지펀드의 한 해

-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자본이득에 의한 수익률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Prepayment 차익거래 등을 이용한 MBS 전략 유효
- Meta Capital 창시자 Deepak Narula는 FRB의 양적 완화 조치로 모기지 시장은 더욱 매력적일 것으로 판단
- Meta Capital 펀드는 '09년 125%, '10년 53%, '11년 23%, 금년에도 9월까지 25%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
- '12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 펀드들은 대부분 MBS 전략을 취하는 펀드들임
- MBS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헤지펀드도 덩달아 성과가 좋음
- 반면, MBS 마켓이 최근 3~4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과를 내자, 거품이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됨

○ 2012년 헤지펀드 성과

- 채권, Relative Value, Distressed 전략이 '12년 성과가 가장 우수



□ 기관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

- 한국 및 아시아 투자자들의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증가전망
 - 골드만삭스는 '20년 한국의 가계금융자산을 4,500조로 예측
 - 기관투자자 자금은 '20년 1,975조원으로 전망



- 아시아 국부펀드들의 헤지펀드 투자
 - CIC는 '09년도에 헤지펀드 투자 개시, 수익률 5~6% 기대
 - 싱가포르 투자청인 GIC도 우수한 헤지펀드에 투자한 상태
 - 향후 CIC, GIC, KIC는 헤지펀드에 더 많은 자금투자를 고려

○ 기관투자자들은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 강조

- Skybridge의 Peter Carey는 금융위기 이전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는 성과 및 투자리스크에 초점을 두었다면, 금융위기 이후는 Operational Due Diligence가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

□ 아시아 헤지펀드 시딩투자

○ 아시아 헤지펀드의 신규창업이 늘고 있음

- 미국 Volcker Rule 시행으로 대형 IB Trader 출신이 아시아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
- 골드만삭스 출신 Morgan Sze는 '11년 홍콩에서 창업을 하여 단기간에 \$2bn의 자금을 모집하였음
- 이는 아시아 시장 내 전략 다양화를 가능하게 함

○ 창업을 돕기 위한 시딩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

- 홍콩 소재 Synergy Fund Management는 네덜란드의 IMQubator와 공동으로 시딩 투자를 진행 중
- 우리투자증권도 프랑스 뉴알파와 공동으로 우리뉴알파펀드 2억불 조성목표로 유럽에서 마케팅 계획 발표

○ 아시아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풀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

- 대다수 실력 있는 매니저들은 대부분 뉴욕/유럽에 포진
- 유능한 아시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구축되기에는 시간이 필요

